

남녀청소년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현황 및 관계분석

김 혜 원[†]

호서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남녀간 차이를 알아보며,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의 남녀 고등학생 5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학생은 여학생들에 비해 더 부정확한 성지식을 갖고 있고, 더욱 개방적이고 불평등적인 성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행동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자위행위, 성관계, 매춘, 음란물접촉에서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임신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간의 관계에서는 남학생집단에서 성개방성과 성행동의 관련성이 두드러졌고,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성평등성이, 여학생의 경우 연령 성평등성, 성지식이 성행동에 대한 주요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의 의미와 이를 통해 제시될 수 있는 청소년의 성문제 상담에 대한 시사점들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청소년, 성지식, 성개방성, 성평등성, 성행동, 성상담

김혜원은 호서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김 혜 원, (330-180) 충남 천안시 안서동 호서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전화 : 041-560-8142 E-mail : hyewkim@office.hose.ac.kr

청소년들의 성문제에 접근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예방책을 마련하는 노력은 우선 청소년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성경험을 하고 있고, 이들이 어떤 성지식과 성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성지식은 자신이나 상대방의 신체적, 심리적 성에 관한 지식으로써, 청소년들이 성행동을 하는데 있어 무지나 오해로 인해 부적절한 결과를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인지적 틀이 되어준다. 이와 함께 성태도는 한 개인이 성행동에 대해 갖고 있는 호오의 정도를 보여줌으로써 청소년들의 성행동을 결정하는데 구체적인 행동적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 청소년들의 성지식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대체로 성의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신체구조, 정자와 난자의 움직임, 남성의 몽정이나 사정, 여성의 월경이나 배란 등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영희, 1993; 이문희, 1993; 이명화, 1998).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성지식의 정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남학생들은 여학생보다 월경, 사정, 임신과정, 아기탄생, 에이즈, 인공임신중절 등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은경, 1992). 다른 연구에서도 피임의 뜻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1993; 이문희, 1993). 그러나, 이명화(1998)의 연구에서는 성지식 중 이차성징, 임신과 피임, 성병, 에이즈, 성폭력은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적으로 더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박성정(1996)의 연구에서는 남녀 중고생간의 성지식 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성별과 학교급간 상호작용차이가 나타나 성지식의 수준이 남고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여고생, 여중생, 남중생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남녀 청소년들은 성지식 중

각각 다른 영역에 대해 더 많거나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연구들마다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확한 윤곽을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성지식과 마찬가지로 성에 관한 태도에서도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병준(1993)의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은 반구범적 성관계(혼전 성관계, 혼전 동거, 혼외 성관계 등)에서 개방적인 반면, 여학생들은 친교적 성관계(자아개방과 친교를 강조한 성관계)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개방성의 차이는 15세 이후에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명화(1998)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성개념의 광의성(성기중심의 성교 + 확대된 성개념), 성인식의 긍정성(성을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런 정도), 성평등성(성에 대해 남녀 동등성 정도), 성허용성(성행동에 대해 윤리, 도덕적 기준보다 관대한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성에 대한 태도에서 더 긍정적이고 평등적인 태도를 갖고, 반대로 남자는 여자에 비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은(1998)의 연구에서도 충동성에 대해서는 성별차이가 없으나 허용적 태도에서는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성태도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준 최근의 연구로는 MBC청소년백서(2000)를 들 수 있다. 결과에 따르면 사랑과 성에 관한 인식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한 윤곽을 보이지만,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반면,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성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성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

성태도에 관한 성별의 차이는 남녀 두 집단이 성의 하위영역 중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는가에

서도 나타나고 있다. Hendrick과 Hendrick(1987)은 사랑유형과 성적태도, 자기노출 및 감각추구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사랑과 성을 더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같은 척도를 사용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더 열정적이고 유희적인 사랑태도를 보이는 반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더욱 실용적이고 친구애적이며, 더욱 소유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rezier & Esterly, 1990; Morrow, Clark, & Brock, 1995).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Regan과 Berscheid(1995)가 성적 욕구를 느끼는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학생들은 사랑에 의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반면, 남학생들은 외모와 성적 환상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Mosher와 Maclan(1994)의 연구에서도 여학생들의 성행동은 남학생들보다 정서적 혹은 관계적 요인들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관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먼저 이성교제의 경우,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박성정(1996)은 전체 35.1%의 학생들이 이성친구가 있고 남녀간의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전국 규모 연구인 중·고등학생들의 조사 결과(강영삼, 이기중, 조원호, 1997)에 따르면, 고등학교 1170명 중 이성교제의 경험은 고등학교 남학생(54.9%)과 여학생(59.4%)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이성친구를 갖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MBC청소년백서, 2000)에서는 전국 13-18세의 남녀 청소년 1500명 중 25.5%의 청소년들이 현재 이성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는(김혜원, 이해경, 2002) 전체 2048명의 응답자 중 57.5%의 학생들이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었고, 성별에 다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남 55.5%, 여 59.5%).

자위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내 중고생 38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김영희, 1993) 전체의 32.7%의 학생들이 자위행위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중고생 93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최인화, 1999)는 전체의 25.5%가 자위행위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다 최근에 전국의 중고생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14.1%만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MBC청소년백서, 2000).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상원(200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1.7%의 학생들이 자위행위 경험이 있었다. 가장 최근에 역시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혜원과 이해경(2002)의 연구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전체 36.3%의 학생들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위행위의 경험정도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어 응답자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위행위의 경험이 많고(김영희, 1993; 최인화, 1999; MBC 청소년백서, 2000; 김혜원, 이해경, 2002),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자위의 경험이 훨씬 더 많아 조사에 따라 약 8배에서 2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김영희, 1993; 강영삼 등, 1997; 최인화, 1999; MBC청소년백서, 2000; 김혜원, 이해경, 2002).

다음으로 성관계에 대해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조사지역과 응답자, 조사방법의 차이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응답자의 7.5%에서 17.9%가 성관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1993; 이영숙, 1995; 한국에이즈연맹, 1996; 대한가족계획협회, 1996; 강영삼 등, 1997; 이명화, 1998; 최인화, 1999).

최근 들어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MBC청소년백서(2000)에서는 비교적 적은 수치인 5.3%만이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었고 서울지역

남자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박현이, 2000) 전체의 17.9%의 학생들이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최근 참조집단(reference group)의 경험을 통해 성고경험 정도를 파악한 연구에서는(‘자신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동성의 친구 5명 중에서 성 관계를 경험했거나 했다고 생각되는 친구는 몇 명인가?’를 질문) 남학생 5명 중 1.85명(37.0%)과 여학생 5명 중 1.24명(24.8%)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윤가현, 2000).

청소년들의 성행동이 과거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늘어나면서 10대 임신도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 유엔의 평가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여성출산이 1980년에 93,600만이었던 것이 2000년까지는 114,700만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성문화연구소, 1997). 최근 이루어진 몇 개의 국내 연구를 통해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도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996년 대한가족계획협회의 발표 결과를 보면, 낙태시술을 한 미혼여성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6.7%였다. 미혼모 보호시설인 애란원의 경우에는 1998년 입소자 중 10대의 비율이 55%정도이고, 과거에는 18-19세가 가장 많았으나 이제는 15-16세가 가장 많아 미혼모의 평균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트아동복지회에 입양을 의뢰한 미혼모들도 1997년에 비해 1998년에는 20%정도 늘어났고 이 중 20세 이하가 61%에 해당된다고 한다(박현이, 2000).

실제로 청소년들의 임신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김상원(1997)은 조사대상자 전체의 0.4%가 임신 경험이 있고 그 대상은 모두 남자친구임을 파악하였다. 대전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봉순(1999)의 연구에서는 전체의 1.9%가 임신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다른 연구에서는(예: 김태근, 1998) 전

체의 7.4%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과 대상자들에 따라 상이한 경험비율이 파악되었다.

임신은 하나의 성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이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임신을 하는 당사자인 여자청소년들에게만 초점을 맞춰 왔을 뿐 미혼부에 대한 관심이나 실태조사는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와 달리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상대에게 임신을 시킨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남자 고등학생 91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박현이, 2000) 성관계 경험이 있는 남학생들 중 15.1%는 ‘상대가 임신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4.0%의 학생들은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없다’고 대답한 다수의 학생들도 자유응답에서 ‘자신과 헤어질 때까지는 임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들이 상대의 임신여부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전국의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혜원, 이해경, 2000)에서 남학생이 상대의 임신경험을 보고한 비율(2.2%)보다는 여학생 스스로의 임신을 보고한 비율(10.8%)이 월등히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대다수가 이성교제의 상대와 성관계를 갖고 이를 통해 임신했다고 보고한 점을 고려할 때, 상대의 임신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남학생들의 무관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청소년 성행동 중 하나로 청소년 성매매를 꼽을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여자청소년들의 성매매 경험은 2000년 33%에서 2001년 48%로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채규만 2001 재인용). 여학생 비행의 실태를 포괄적으로 다룬 최근의 연구에서(민무숙, 김인순, 1999) 35개 중 고등학교 여학생 1,739명 중 유흥업소의 일을 한 경험은 전체의 1.4%인 25명이고 돈을 위한 성관

계를 한 사람은 전체의 0.5%인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물론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인문계에 비해 실업계가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고복자(1998)의 연구에 따르면 성적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약 120만 명의 여성 중 13.5%에 해당하는 여성이 만 20세 미만에 이미 윤락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1998년 12월부터 2개월 간 2,500여 개의 청소년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성인 남자와 성매매(일명 “원조교제”)를 한 소녀가 105 명이었으며 18세 미만이 전체의 66.7%인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국 고등학생에 대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최근 결과(김혜원, 이해경, 2000)에서는 단지 전체의 1% 정도의 청소년들이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았다. 반면,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경험은 남학생의 경험이 여학생의 경험에 비해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음란물의 경험에 대해서는 전국의 남녀 중고생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의 56.7%는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접촉 경험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더욱 많았다(MBC 청소년백서, 2000). 청소년 1,9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윤영민, 2000)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방문해 본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은 39.3%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여론조사방법을 통해 초중고생 학부모, 현직교사를 포함한 4,000명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연구에서는(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1) 이상의 연구에서 보다 훨씬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해 음란정보를 접촉해본 청소년은 전체의 84.4%였고, 그 중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학생도 35.8%에 달했다. 최근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전체의 69.2%의 학생들이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비율은 남학생들(89.8%)이 여학생들(48.6%)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김혜원, 이해경, 2002).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청소년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지식과 성행동간의 관계는 성태도와 성행동간의 관계에 비해 비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검증한 소수의 연구들 중 하나인 박성정(1996)의 연구에서는 성행동과 성지식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학생들의 성지식이 많을수록 이들은 남성들의 가벼운 성접촉(키스)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성접촉과 진한 애무 등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서울시내 남녀 중고생 827명을 대상으로 한 이명화(1998)의 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 바 있다. 청소년들이 성관련매체들(예: PC통신이나 인터넷)을 많이 접할수록 성갈등(성에 관한 고민이나 걱정거리)과 성비행이 증가하고 성에 대해 허용적이지만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흥미롭게도 성관련매체를 많이 접할수록 청소년들의 성지식은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접하고 있는 성지식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성관련매체의 접촉이 많고 성지식이 적을수록 성에 관한 갈등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청소년들의 성태도와 성행동간의 관계에 대하여 학자들은 청소년들의 성태도가 이들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Whitbeck 등(Whitbeck, Yoder, Hoyt, & Conger, 1999)은 성별에 상관없이 성행동은 성에 대한 허

용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 일찍부터 성관계를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박성정(1996)의 연구에서는 성태도와 성행동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남성과 여성의 혼전 성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이들 스스로 이성간에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지역의 중고생 24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아미, 2000)에서도 보수적인 성태도를 가진 학생들은 문제성행동을 적게 보이는 반면, 허용적이고 쾌락적인 성태도를 가진 학생일수록 문제성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지역 남녀 중고생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혜원 2001)에서는 인터넷음란물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에 비해 더 개방적이고, 남녀 불평등적인 성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성행동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이나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의 성지식과 성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에서는 각 요인들 각각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반면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상호 관계성을 파악하는데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이 기울여져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첫째, 청소년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현황과 남녀간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행동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둘째, 청소년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러한 관계가 남녀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성행동이 성지식과 성태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와 이에 대한 남녀간 차이를 밝힘으로써 청소년들의 성문제행동에 대한 예방과 대책마련에 대

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경기지역 고등학생 600명(남자 321명, 여자 2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보조자에 의해 학교에 설문지가 전달되었고, 연구보조자들의 진행에 따라 학생들은 학급에서 설문내용에 응답하였다. 회수된 580부의 설문지 중 불충분한 반응을 제외한 57명(남자 309명, 여자 262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되었다.

측정변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교, 학년, 거주지, 가족형태, 부모 교육정도, 가정생활 정도를 조사하였다.

성지식

성지식은 총 15개의 문항을 통해 성과 관련된 지식을 측정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정은경, 1992; 김영희, 1993; 이문희, 1993; 이명화, 1998; 김혜원, 이해경, 2000; 박현이, 2000)에서 중시되었던 성지식 영역에 관한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성지식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적 발달(5문항), 임신 및 피임(5문항), 성위생(2문항), 성폭력(3문항)의 문항들에 대하여 각 문항이 맞고 틀리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범위: 0-15점).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더욱 정확한 성지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성지식문항은 평

균 Cronbach's $\alpha = .81$ 의 신뢰도를 보였다.

성태도

성태도는 성개방성과 성평등성의 두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성개방성은 다양한 성행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10개의 문항(예: '사랑하는 사이라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성적 욕구를 느낀다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을 통해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여(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범위: 10-50점). 본 연구에서 성개방성 문항은 Cronbach's $\alpha = .83 \sim .86$ (평균.85)의 신뢰도를 보였다.

성평등성은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해 어느 정도 평등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10개의 문항(예: '결혼 전 순결을 지키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중요하다(역코딩)', '원치 않는 임신은 했을 경우 주된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역코딩)')을 통해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여(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관해 남녀평등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범위: 10-50점) 성평등성 문항은 Cronbach's $\alpha = .76 \sim .80$ (평균 .79)의 신뢰도를 보였다.

성행동

성행동 경험은 총 6개의 성행동(이성교제, 자위행위, 성관계, 임신경험, 성매매, 음란물경험)에 관해 질문하였다. 이성교제에 관해서는 이제까지의 경험유무, 첫 경험의 시기, 현재의 이성교제 대상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자위행위에 대해서는 자위행위의 경험유무, 첫 경험의 시기, 자위행위

의 빈도에 관해 질문하였다. 성관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경험유무, 첫 경험의 시기, 첫 경험의 대상, 첫 경험의 계기에 관해 조사하였다. 임신에 관해서는 이제까지의 경험유무, 임신의 해결방법에 관해 질문하였다. 임신경험에 대해 여학생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고 남학생은 자신으로 인한 상대의 경험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성매매는 상대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경험을 말하며 이에 대해 성매매의 경험유무와 첫 경험시기, 성매매의 계기, 상대의 연령에 관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음란물 경험에 대해서는 음란매체(포르노잡지, 만화, 비디오, 인터넷 사이트 등을 접해본 경험)여부와 함께, 첫 경험 시기, 이용 빈도, 가장 자주 접하는 매체 등에 관해 질문하였다.

결 과

인구사회학적 배경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결과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16~17세였고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평균연령이 약간 높았다. 거주지는 남녀학생 모두 서울이 가장 많았고, 가족사항은 두 집단 모두 친부모님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부모님의 교육정도는 두 집단 모두 고졸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가정생활정도도 두 집단 모두 '중간정도'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성지식

성지식에 대해 남녀 학생들은 각각 10점에서

표 1.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사례수/평균 (비율/SD))

항 목		남학생	여학생
연 령		16.38 세(8.55)	17.14 세(0.87)
학 년	1학년	125명(41.25%)	61명(25.85%)
	2학년	105명(34.65%)	73명(30.93%)
	3학년	73명(23.93%)	102명(43.22%)
거주지	서울	207명(69.00%)	161명(69.10%)
	직할·광역시	85명(28.33%)	46명(19.74%)
	기타	8명(2.67%)	26명(11.16%)
가족	친부모님 두분	237명(78.74%)	205명(86.13%)
	친부모 한분	28명(9.30%)	15명(6.30%)
	친부모+계부모	9명(2.99%)	4명(1.68%)
	친척	9명(2.99%)	8명(3.36%)
	기타	18명(5.98%)	6명(2.52%)
교육정도	부		
	무학	4명(1.38%)	0명(0.00%)
	국졸	16명(5.52%)	10명(4.27%)
	중졸	35명(12.07%)	24명(10.26%)
	고졸	169명(58.28%)	152명(64.96%)
전문대이상	66명(22.76%)	48명(20.51%)	
모	무학	2명(0.71%)	1명(0.43%)
	국졸	18명(6.36%)	17명(7.33%)
	중졸	65명(22.97%)	48명(20.69%)
	고졸	162명(57.24%)	150명(64.66%)
	전문대이상	36명(12.72%)	16명(6.90%)
생활정도	아주 못사는편	14명(4.67%)	3명(1.27%)
	못사는편	60명(20.00%)	37명(15.61%)
	중간	191명(63.67%)	181명(76.37%)
	잘사는편	34명(11.33%)	13명(5.49%)
	아주 잘사는편	1명(0.33%)	3명(1.27%)

표 2.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지식 점수 비교 (평균 SD)

	집 단		전체	t
	남학생	여학생		
성지식	10.12(2.18)	11.41(1.98)	10.76(2.08)	7.78***

*** $p < .001$

표 3.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태도에 관한 반응 비교(사례수/평균(비율/SD))

		집 단		전체	t
		남학생	여학생		
성태도	성개방성	28.55(6.60)	25.18(4.81)	26.86(6.08)	6.79 ***
	성평등성	24.18(5.03)	28.29(7.27)	26.23(6.67)	7.61 ***

*** p < .001

11점 사이의 평균점수를 보였다(표 2). 즉, 이들은 15개의 문항 중 3분의 2 정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유의할 정도로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더 많이 혹은 더 정확히 알고 있음을 나타냈다.

성태도

성개방성과 성평등성 모두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균 26점 정도를 보였다(표 3). 이를 각 문항별 지시사항에 맞추어 볼 때, 개방적인 성행동이나 남녀평등적인 사항들에 대해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2)’와 ‘그저 그렇다(3)’의 중간 정도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개방성과 성평등성 모두에 대해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더욱 개방적인 성태도를 갖고 있으나 남녀의 성에 관해서는 불평등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행동

이성교제: 남녀 고등학생의 절반 이상의 학생들(54.64%)은 이성교제를 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경험은 남학생(54.41%)과 여학생(54.87%) 모두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들이 처음으로 이성교제를 시작한 것은 남녀 모두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평균 7.66학년)였다. 현재의 이

성교제의 대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은 학교급인 고등학생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생, 대학생, 성인의 순서였다. 이성교제의 대상에서는 남녀 집단간 차이가 있어, 남학생의 경우에는 자신보다 어린 중학생들을 사귀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생, 대학생의 순서를 보인 반면, 대다수의 여학생들은 같은 또래인 고등학생을 사귀고 있고 다음으로 중학생, 대학생을 사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위행위: 전체 33.67%의 응답자들은 이제까지 자위행위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들의 대다수는 자위행위 경험이 있는 반면, 여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위행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간의 큰 차이를 보였다. 자위행위를 처음 시작하는 시기는 평균 중 1에서 중2(7.98학년) 정도이고, 남학생들(7.83학년)이 여학생들(8.14학년)에 비해 약간 빨리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위행위의 횟수는 두 집단 평균 ‘한달에 1-2번’(41.58%)과 ‘일주일에 1-2번’(40.86%)이 가장 많았고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성관계: 남녀학생의 평균 7.47%가 이제까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경험 비율이 3배가량 많았다.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정도(10.38학년)에 처음으로 성관계를 갖고 이러한 경험은 역

표 4.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경험에 관한 반응비교(사례수/ 평균(비율/SD))

	경험	집 단			χ^2/t 값	
		남학생	여학생	전체		
이성교제	경험여부	148명(54.41%)	124명(54.87%)	272명(54.64%)	0.01	
	첫경험시기	7.66학년(2.16)	7.66학년(2.19)	7.66학년(2.18)	0.00	
	대상	중학생	68명(54.84%)	15명(13.51%)	83명(34.17%)	45.31 ***
		고등학생	51명(41.13%)	81명(72.97%)	142명(57.05%)	
		대학생	3명(2.42%)	11명(9.91%)	14명(6.16%)	
성인		2명(1.61%)	4명(3.6%)	6명(2.60%)		
자위행위	경험여부	168명(63.64%)	8명 (3.7%)	176명(33.67%)	183.75 ***	
	첫경험시기	7.83학년(1.53)	8.14학년(2.54)	7.98학년(2.03)	0.31	
	빈도	한 달에 1-2회	60명(43.17%)	2명(40.00%)	62명(41.58%)	1.03
		일주일에 1-2회	58명(41.73%)	2명(40.00%)	60명(40.86%)	
		3-4일에 한 번	9명(6.47%)	0명(0.00%)	9명(3.23%)	
거의 매일		12명(8.63%)	1명(20.00%)	13명(14.31%)		
성관계	경험여부	29명(11.24%)	8명(3.7%)	37명(7.47%)	9.27 **	
	첫경험시기	9.52학년(1.36)	11.25학년(0.95)	10.38학년(1.15%)	3.06 *	
	첫경험계기	주변친구	2명(9.09%)	0명(0.00%)	2명(7.41%)	8.22
		분위기	4명(18.18%)	2명(40.40%)	6명(2.22%)	
		술/약물	1명(4.55%)	1명(20.00%)	2명(7.41%)	
		호기심	6명(27.27%)	0명(0.00%)	6명(2.22%)	
		상대가 원해서	2명(9.09%)	2명(40.40%)	4명(14.81%)	
		성충동	4명(18.18%)	0명(0.00%)	4명(14.81%)	
		사랑하므로	3명(13.64%)	0명(0.00%)	3명(11.11%)	
		기타	0명(0.00%)	0명(0.00%)	0명(0.00%)	
입신	경험여부	0명(0.00%)	4명(1.94%)	4명(8.7%)	4.74 *	
	첫경험시기	0명(0.00%)	11.0학년(1.34)	11.0학년(1.34)		
	해결방법(낙태)	0명(0.00%)	4명(100.0%)	4명(100.0%)		
성매매	경험여부	2명(0.78%)	0명(0.00%)	2명(0.39%)		
	첫경험시기	9.66학년(1.55)				
음란물	경험여부	239명(77.34%)	130명(49.61%)	369명(63.47%)	47.66 ***	
	첫경험시기	7.40학년(1.56)	8.29학년(2.01)	7.84학년(1.78)	4.05 ***	
	이용빈도	일년에 1-2번	31명(14.49%)	55명(53.92%)	86명(34.20%)	71.32 ***
		반년에 1-2번	31명(14.49%)	23명(22.55%)	54명(18.52%)	
		한 달에 1-2번	84명(39.25%)	16명(15.69%)	100명(27.47%)	
		일주일에 1-2번	57명(26.64%)	8명(7.84%)	65명(17.24%)	
		거의 매일	11명(5.14%)	0명(0.00%)	11명(2.57%)	
	이용매체	잡지/만화	8명(3.81%)	9명(8.33%)	17명(5.35%)	59.02 ***
		영화/비디오	29명(13.81%)	55명(50.93%)	84명(26.45%)	
		인터넷사이트	171명(81.43%)	43명(39.81%)	214명(67.3%)	
전화음성정보서비스		1명(0.48%)	0명(0%)	1명(0.31%)		
기타		1명(0.48%)	1명(0.93%)	2명(0.63%)		
성행동(전체)		2.09(1.26)	1.24(0.99)	1.66(1.12)	8.40 ***	

* $p < .05$ ** $p < .01$ *** $p < .001$

시 남학생들이 더욱 빨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를 갖는 대상에 대해서는 남녀 학생 모두 '이성교제 상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남학생 69.5%, 여학생 80.0%)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성관계의 이유로 남녀학생들은 비교적 유사한 요인을 꼽았고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남학생들은 첫 성관계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호기심'(27.2%)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분위기에 휩쓸려서'(18.1%), '성충동 때문에'(18.1%)의 이유를 꼽았다. 반면, 여학생들은 비록 적은 수가 응답하기는 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40.0%)와 '상대가 원해서'(40.0%)를 중요한 첫 성관계의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임신: 성관계의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임신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37명의 학생들 중 남학생들은 상대가 임신을 한 경우가 한 명도 없다고 응답한 반면, 4명의 여학생들(1.94%)은 이제까지 임신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경(평균 11세)에 처음 임신하였다고 응답하였고, 해결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다', '낳아서 입양했다', '자연유산 되었다', '인공유산(낙태)했다' 중 모두 '인공유산(낙태)'을 통해 임신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고하였다.

성매매: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은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없었고, 남학생 2명만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처음으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시기를 중3 ~ 고1(평균 9.66학년)이라고 응답하였다.

음란물 경험: 음란물 경험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비

율은 남학생들(77.34%)에게서 훨씬 높았다. 첫 경험 시기에서도 남녀간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들(평균 7.40학년)은 여학생들(평균 8.29학년)에 비해 평균 1년 정도 빠른 시기에 음란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빈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일년에 1-2번'의 비율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 달에 1-2번'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서도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들은 '한 달에 1-2번'이나 '일주일에 1-2번'의 이용이 두드러지게 많아 다수의 여학생들이 '일년에 1-2번' 이용하는 것과 달리 더욱 자주 음란물들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녀 학생들은 자주 이용하는 음란매체의 종류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들은 압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사이트를 자주 사용하고 다음으로 소수의 학생들이 영화와 비디오, 잡지와 만화를 보는 반면, 여학생들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영화와 비디오를 보고 다음으로 인터넷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성행동 전체 점수: 성행동 점수는 6개 성행동의 경험 유무값 만을 합산하였는데, 즉 제시된 각 6개의 성행동에 대해 경험이 있다고 한 경우를 1점씩으로 계산하여 6개의 성행동을 모두 경험한 경우 6점으로 합산하였다. 이에 대해 남학생들은 평균 2개 정도의 성행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M=2.09, SD=1.26), 여학생들은 평균 1개 정도의 영역에서 성행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M=1.24, SD=0.99)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8.40, p<.001$).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간의 관계 분석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간의 상관관계

표 5.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간의 상관관계(남학생 진하게)

	성지식	성개방성	성평등성	성행동
성지식	-			
성개방성	-.029 .012	-		
성평등성	-.096 -.142*	.504*** -.111	-	
성행동	-.002 .090	.202*** .041	.233*** -.104	-

* $p < .05$ *** $p < .001$

남녀 학생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의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남학생의 경우 성지식은 성개방성이나 성평등성, 성행동과의 관계에서 모두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개방성은 성평등성, 성행동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즉, 남학생들이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이들은 남녀 평등적인 성태도를 갖고, 또한 성행동을 더욱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여학생들은 성지식과 성평등성 간에만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나타나, 성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성에 대해서는 남녀 불평등적인 태

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집단간 차이

학생들의 성지식과 성태도가 성행동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또한 이러한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성별 X 성지식 X 성행동과 성별 X 성태도 X 성행동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서 남녀 학생들의 성지식과 성태도 상하집단은 각 점수 분포를 상중하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눈 뒤 상, 하의 점수를 보인 응답자들을 택했다. 성지식과 성태도 상하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성별과 성지식에 따른 성행동의 관계를

표 6.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지식, 성개방성, 성평등성 상하집단의 성행동 평균점수

		남학생	여학생
성지식	상	2.05(0.18)	1.31(0.13)
	하	1.91(0.11)	1.06(0.20)
성개방성	상	2.28(0.10)	1.22(0.16)
	하	1.68(0.12)	1.13(0.10)
성평등성	상	2.29(0.10)	1.34(0.21)
	하	1.57(0.12)	1.10(0.10)

살펴보았다(표 7). 상관관계의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나($F_{(1, 225)}=22.06, p<.0001$)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성행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성지식의 점수에 따라서는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학생들의 성지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는 성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성행동에 대한 성별과 성지식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별과 성개방성에 따른 성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성개방성 모두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상관관계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대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성행동을 경험하고 있고($F_{(1, 343)}=33.05, p<.0001$),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성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_{(1, 343)}=7.47, p=.006$). 이와 함께 성행동에 대한 성별과 성개방성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_{(1, 343)}=3.64, p=.05$). 이에 대한 추후 분석(Scheffe test)의 결과, 남학생들은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할 정도로 성행동을 많이 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성개방성 상하 집단간에 성행동에서의 차이가 없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성평등성에 따른 성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주효과와 성평등성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성행동을 많이 하고($F_{(1, 296)}=20.97, p<.0001$), 남녀 평등적인 성태도를 갖는 집단

표 7.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지식, 성개방성, 성평등성 상하집단의 성행동 평균점수

변인	변산원	SS	df	MS	F
성 지 식	성별	32.45	1	32.45	22.06***
	성지식상하	1.97	1	1.97	1.34
	성별 X 성지식 상하	0.04	1	0.04	0.03
	오차	325.11	221	1.47	
	전체	33.44	3	11.14	7.58***
성 개 방 성	성별	48.04	1	48.04	33.05***
	성개방성상하	10.86	1	10.86	3.64*
	성별 X 성개방성 상하	5.29	1	5.29	7.47**
	오차	492.77	339	1.45	
	전체	88.38	3	29.46	20.27***
성 평 등 성	성별	27.46	1	27.46	20.97***
	성평등성상하	15.64	1	15.64	11.95***
	성별 X 성평등성 상하	2.42	1	2.42	1.85
	오차	382.52	292	1.31	
	전체	85.19	3	28.39	21.68***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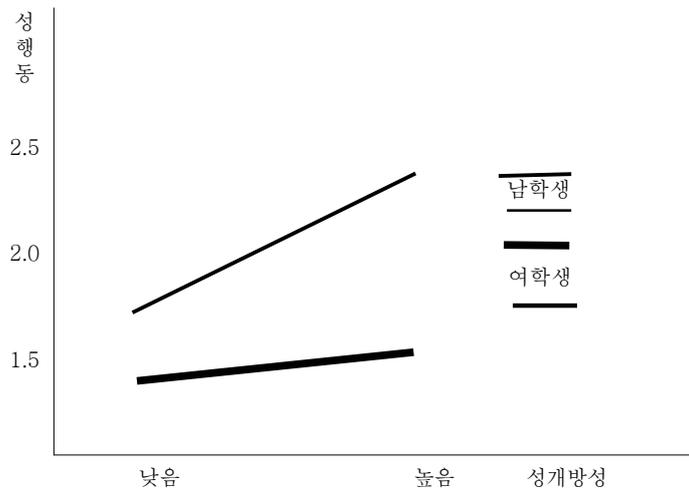


그림 1. 성행동에 대한 성별과 성개방성의 상호작용효과

은 남녀 평등적인 성태도를 갖는 집단에 비해 성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_{(1, 296)} = 11.95, p = .0006$). 성별과 성평등성에 따른 성행동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응답자들의 성행동에는 어떤 변인들이 영향력

을 갖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남학생집단, 여학생집단, 전체 집단별로 실시되었고, 각 분석모형에서는 종속변인을 성행동점수(합산점)로 하고 이에 대한 예언변인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성지식, 성개방성, 성평등성을 포함시켰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성행동에 관한 주요 설명변인인 성지식과 성태도(성개방성, 성평등성)의 영향력을 밝히는데 있어 통제변인으로서의 의미

표 8. 성행동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결과

	성행동	β	R^2	F
남학생 (N=248)	성평등성	.056	.056	4.25 **
여학생 (N=212)	연령	.116	.116	6.46 ***
	성평등성	.014	.131	5.29 ***
	성지식	.017	.148	4.17 ***
전체 (N=461)	성별	.124	.124	7.74 ***
	성평등성	.035	.159	6.81 ***

** $p < .01$ *** $p < .001$

를 갖고, 이를 위해 연령, 부모교육정도, 가정 생활정도를 포함시켰다. 분석방법은 stepwise를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표 8), 남학생집단에서는 성행동에 대해 남녀평등적인 성태도만이 설명변량 6%로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F_{(1, 247)} = 4.25, p = .006$). 즉, 남학생들은 성평등적인 태도를 지닐수록 성행동을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집단에서는 연령과 성평등성과 함께 성지식이 이들의 성행동을 설명하는 주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연령은 성행동 전체 분산의 약 12%를 설명하면서 나이가 많은 여학생일수록 성행동을 더 많이 함을 보여주었다($F_{(1, 211)} = 6.46, p = .001$). 이를 통해 여학생들의 성행동 경험정도를 예측하는데 고려되었던 기타의 변인들에 비해 그들의 연령이 중요한 설명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성평등성 요인도 여학생들의 성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어, 여학생들이 성평등적인 태도를 지닐수록 성행동을 더욱 많이 경험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남학생집단과는 달리 여학생집단에서는 성지식의 중요성이 나타났는데, 흥미롭게도 여학생들은 성지식이 많은 경우 성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변인에 비해 성평등성과 성지식의 설명변량은 1-2% 내외로 적은 정도였다.

전체집단에서는 성별과 성평등성이 성행동에 관한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전체학생들의 성행동을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서 성행동에 관한 전체분산의 약 12% 정도를 설명하고 있었다($F_{(1, 460)} = 7.74, p = .001$). 이와 함께 성평등성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나(설명변량 약 4%, $F_{(1, 460)} = 6.81, p = .001$), 남녀학생 모두 남녀 평등적인 성태도를 갖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성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청소년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현황

성지식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정답비율은 그리 낮지 않은 편이어서(평균 3분의 2이상의 정답률) 기존의 연구들에서 표시되었던 우려 - 청소년들의 성에 관한 무지 - 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성지식을 갖고 있었다. 성별과 성지식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에 관해 비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다만 성지식의 영역에 따라 남녀간에 지식의 정도가 차이를 보고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들의 성지식 우위를 보고한 몇몇 연구(예: 김혜원, 이해경, 2000)의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현실적으로 보면 성에 관한 관심과 행동표출이 상대적으로 여학생보다 많은 남학생들이 성에 관해서는 더욱 부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학생들에 대한 상담에서 그들의 문제의 원인이 부정확하거나 부족한 성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태도에 있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개방적이었지만 남녀의 성에 관해서는 불평등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의 연구들(박성정, 1996; 이명화, 1998; 이정은, 1998; 김혜원, 이해경, 2000; 문화방송, 2000)에서 일관적으로 보고되었던 바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결과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남녀 학생들의 태도 점수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즉

성개방성과 성평등성에 대해 학생들은 문항당 평균 2.5에서 2.8의 점수를 보여 '대체로 그렇지 않다'와 '그저 그렇다'의 반응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혼전성관계나 원조교제와 같은 성행동에 대해 청소년이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표명한다는 일부 연구결과들(예: 고성혜, 2001)과 비교한다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그리 극단적인 태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들이 이들의 성태도에 관해 우선적인 개방성이나 불평등성을 가정하기보다는 그들의 성태도를 조심스럽게 파악할 때, 성태도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성행동 양식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개의 영역을 통해 살펴본 성행동에서는 이성교제와 임신경험을 제외한 나머지 행동들에서 남학생들의 경험이 더 많거나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행동을 한다는 기존의 결과들(정원식 등, 1985; 이재창 등, 1986; 김영희, 1993; 한국에이즈연맹 1996; 강영삼 등, 1997; 최인화, 1999; MBC청소년백서, 2000;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1; 김혜원, 이해경, 200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이성교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들(김상원 등, 1997; 강영삼 등, 1997; 한인영, 2000)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이성교제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성교제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기능들을 - 예를 들어 성에 대한 건전한 인식함양, 대인관계기술훈련, 올바른 자아파악 등의 기회제공 -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성교제에서 필요한 의사결정능력과 대인관계 기술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등이 또한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성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성교제의 경험 또한 많아지면서 이들은 직접적인 신체적 성관계의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말기를 넘어서면서 첫 경험을 시작으로 하여 전체 약 7.5%의 청소년들이 성교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최근에 발표된 몇몇의 결과들(가족계획협회, 1996; 이명화, 1998; 최인화, 1999; 김혜원, 이해경, 2000)보다 약간 적은 수치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와 동일하게(강영삼 등, 1997; 최인화, 1999; 김혜원, 이해경, 2000; MBC청소년백서, 2000) 이들의 상당수는 이성교제의 상대방과 성교의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이성교제가 상당부분 신체적인 접촉, 나아가 성교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청소년들은 수동적이고 즉흥적인 이유로 성교에 개입하고 있어, 이들의 육체적 접촉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정신적인 교류를 토대로 하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한다. 특히 남학생들은 '성충동'이 성관계의 주된 계기였고 이성교제 상대에 이어 '모르는 상대' 또한 첫 성관계의 주요 대상이었음을 보고하고 있어 충동적인 성행동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상담이나 성교육에서는 남녀 청소년들이 보이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접근적 차이를 인지함으로써 이들이 상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의 상담과정 중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성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다룸으로써 이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간의 관계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간의 상호관련성에서 우선, 남학생들은 성에 대해 개방적이거나 남녀 불평등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성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들은 성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을수록 성에 대해 불평등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관계수는 그리 크지 않았다. 성에 대한 개방적, 혹은 불평등적인 태도가 성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들(Whitbeck, Yoder, Hoyt, & Conger, 1999; 박성정, 1996; 조아미, 2000; 김혜원, 2001)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난 바 있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개방성이 성행동과 갖는 관계가 남학생에게서 두드러져 여학생들은 개방/보수적인 성태도에 따라 성행동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남학생들은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성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내면의 성적 태도를 자신의 행동과 직접 연결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직접적인 성행동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해소하거나, 혹은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남녀 학생의 집단내적인 차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우리사회가 보이는 여성의 성에 대한 비허용적인 태도가 여자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적태도를 행동으로 표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해석을 또한 가능케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문제를 다루는 상담장면에서는 청소년들의 성행동 자체에 대한 초점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내면적인 지침이 되는 성태도를 건강하

고 바람직하게 확립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회귀분석을 통해 보았을 때는 남학생들의 경우 성평등성만이 성행동을 예언하는 주요 변인이었고, 여학생들은 연령과 성평등성, 성지식이 모두 성행동을 예언하는 주요변인으로 나타났다. 남녀 전체 집단에서도 성평등성은 성별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성평등성과 성행동간의 관계를 다룬 기존연구들이 거의 없는 현 상태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해 평등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남성 뿐 아니라 여성도 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가 성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일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평등성의 문항들을 좀 더 보완하여 이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더욱 분명한 결과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를 논의하는데 있어 우리는 본 연구가 종단적인 연구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비록 연구의 결과가 회귀분석을 통해 얻어졌고 따라서 성행동이라는 결과변인에 대한 설명 혹은 예언변인들을 찾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성평등성이 반드시 성행동의 독립 변수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성행동을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성태도에 변화를 가져왔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능성은 추후 시간적으로 선행되는 원인과 결과를 결론내릴 수 있는 후속연구를 통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남녀청소년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현황파악과 남녀비교 뿐 아니라 이들 변

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 행동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상담과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청소년들, 특히 남녀고등학생만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청소년 집단 전체로 일반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 개인의 내면적인 양상인 지식과 태도가 외현적인 행동과 갖는 관계에 있어서, 어떤 요소가 선(先) 혹은 후(後)의 관계에 있는지를 본 연구의 결과제시를 통해서도 명확히 결론내릴 수 없다. 또한, 성이라는 개인적인 변인을 설문지법을 통해 조사함으로써 응답자들의 솔직한 응답을 얻어내는데 한계가 있었으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 강영삼, 이기중, 조원호 (1997).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연구. *교육논총*, 17(1), 159-321.
- 고복자 (1998). 성적서비스 산업현장의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 사후 복귀방안. 청소년대책위원회.
- 고성혜 (2001). 성매매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서울협의회.
- 고애자 (1990). 중학교 학생들의 이성친구에 대한 태도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기홍 (1996). 수도권 초, 중학생의 성숙도와 성 지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양대학교 생물교육과*.
- 김봉순(1999). 고등학생의 성경험 실태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공주영성정보대학 논문집*, Vol. 6.
- 김병준 (1993). 한국 10대 청소년의 성성구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상원 (2001). 중학생의 성의식 조사 및 성교육 자료집 개발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영희 (1993). 청소년의 성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근 (1998). 청소년의 성의식, 성행동과 비행의 관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혜원, 이해경 (2000). 청소년들을 위한 양성평등 성교육 방향의 모색: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의식과 성행동 실태에 근거하여*. *한국여성심리학회*, 5(2), 29-45.
- 김혜원 (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현황과 그에 대한 원인분석: *인터넷 중독증세와 음란행위를 중심으로*. 제37회 청소년문제 연구 세미나 자료집, 19-66.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김혜원, 이해경 (2002). 고등학생들의 성행동 경험분석. *청소년학연구*, 9(2), 247-272.
- 대한가족계획협회 (1996). 남자 고등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가족계획협회 부설 성문화연구소*.
- 문화방송 (2000). MBC 청소년백서.
- 민무숙, 김인순 (1999). 여학생 비행의 실태와 학교의 대응방안. *여성개발원*.
- 박현희 (2000). 10대 임신예방을 위한 대안모색: *교육적 측면에서*. 2000년 제2회 10대 임신예방을 위한 연속 토론회 자료집, *서울 YMCA 청소년 성교육 상담실*.
- 윤가현 (2000). 10대의 이성교제와 성생활. *청소년의 성문제와 성보호*. 2000년도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윤영민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설명모형의 탐색*. *인터넷과 청소년 학술심포지움*.

- 1-20.
- 이계화 (1998). 중, 고등학생들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화 (1998). 음란매체 접촉에 따른 성갈등에 성태도와 지식이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문희 (1993). 도시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와 성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숙 (1995). 청소년 이성교제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재창 (1986). 청소년 행동성향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연합회.
- 정보통신윤리 (2001. 9). 인터넷상에서 음란물 접촉빈도. 어린이, 청소년 정보이용실태 및 교사, 학부모 대응 실태조사.
- 정은경 (1992). 청소년의 성에 대한 연구-성에 대한 관심 지식 경험 및 성교육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아미 (2000).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교육적 시사점. 청소년정책 전문연구 II. 한국청소년개발원.
- 채규만 (2001). 청소년 성 매매자들의 신상공개의 심리적인 영향.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학제적 조명. 2001 학제간 심포지엄 자료집.
- 최인화 (1999). 화성군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 연구. 화성군청소년상담실 조사연구 2. 화성군청소년상담실.
- 한인영 (2000). 청소년의 성문화: 임신, 낙태의 현실과 대책. 10대의 성-임신, 낙태의 현실과 대책. 향락산업으로부터 딸, 아들 지키기 연속토론회 자료집.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Frazier, P. A. & Esterly, E. (1990). Correlates of relationship beliefs: Gender, relationship experienc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331-352.
- Hendrick, C., & Hendrick, S. (1987). Love and sexual attitudes, self-disclosure, and sensation seek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 281-297.
- Morrow, G. D., Clark, E. M., & Brock, K. F. (1995). Individual and partner love styles: Implications for the quality of romantic involve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2 (3), 363-387.
- Regan, P. C., & Berscheid, E. (1995). Gender differences in beliefs about the causes of male and female sexual desire, *Personal Relationships*, 2, 345-358.
- Whitbeck, L. B., Yoder, K. A., Hoyt, D. R., & Conger, R. D. (1999). Early adolescent sexual activity: A development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4), 934-947.

원 고 접 수 일 : 2003. 3.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3. 5. 19
 게재 결정 일 : 2003. 6. 7

The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s of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Hye-Won Kim

Hoseo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tried to explore the current data 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 of adolescents, 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 three variable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600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Results showed that male students had more opened and equal sexual-attitude, but lower level of sexual knowledge. Compared to female counterparts, male students also had more experiences of masturbation, intercourse, pornography, but less experiences of the pregnancy of partner.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penness and sexual equality was significant and interactive among male group. In regression, sexual equality was the only significant predictor of male students' sexual behavior meanwhile age, sexual equality, and sexual knowledge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female students' sexual behavior.

Key Words : adolescent,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